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8일 월요일 음 3월 19일 (11물)

특별기고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13°C로, 낮 최고기온은 18-20°C로 예상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for Jeju.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3/20°C, 모레 구름 많음 15/22°C

월드뉴스

수단 내전, 사우디서 휴전 회담 돌입

특사 파견... 무력충돌 지속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휴전 회담에 돌입했다. 지난달 15일 무력 충돌을 시작한 이래 양측이 직접 마주 앉아 휴전 협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단 수도 하르툼 거리에 배치된 정부군 탱크. 연합뉴스

갈로 사령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확고한 휴전을 확립하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회담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양측은 인도주의적 휴전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며 종전 협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이 3주 넘게 지속하는 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이석항

자연제주 대표

아소산은 30만~9만 년 전에 4차의 거대한 분출로 형성된 칼데라(caldera) 지형이며 동서로 18km, 남북으로 25km 크기의 함몰된 화산 지형이다. 분출 당시 화쇄류는 규슈의 절반을 덮은 것으로 추정되고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까지 화산 분진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조사됐다.

아소산에서는 광활한 아소의 칼데라 지형을 느낄 수 있다. 그 속에 하늘거리는 초원의 모습, 대자연의 단순미와 경이심, 유구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그 아름다운

아소초원(阿蘇草原)과 새별오름

근원은 무엇인가?

아소초원은 부분적으로 불태운 초원들을 볼 수 있다. 노야끼(野焼き)의 흔적이었다. 아소초원을 유지하는 인공적인 관리의 흔적이다. 노야끼의 불은 대지의 표면만을 태우는 것으로 진드기 등 동양해충을 구제하고 초본식물들은 뿌리나 줄기의 형태로 살려내고 목본식물은 도태시켜서 자연적 천이(succession)를 억제해 초지의 식생,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축문화의 유산이다. 천이가 억제된 아소초원에서는 종 다양성이 유지돼 봄이 오면서 타버린 억새뿌리 주변에서 노랑제비꽃이 군락을 이루어 아름답고, 여름이 돼 초목으로 물든 초원에는 키가 큰 억새가 자라고 그 사이로 기다란 꽃대에 진보라색꽃이 작다면 보라색 절굿대도 바람에 흔들리게 될 것이다. 모두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북방계 식물들이다. 일본에서는 아소초원에만 볼 수 있는 대륙종 식물들이 많아 아생화 애호가들에게 성지와 같은 장소이다. 이 꽃들은 현재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로 빽하기때 아소초원을 가득 덮었던 식물들이다. 광대한 아소산 초원이 숲으로 천이(遷移)되는 과정에 숲에서 밀려 나와 억새초원에 공생의 형태로 남아있는 유존종(遺存種)인 것이다. 노야끼는 천년에 가깝게 우마방목, 풀베기, 건조쌓기 등과 같이 이어져 온 목축문화의 소산이다. 일본은 193년부터 아소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광활한 구마모도의 경관·문화자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제주도를 같이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도 한라산 아고산대에 우마방목이란 목축문화가 있었고, 오

름에도 방애불농기와 우마방목을 했었다. 피뿌리풀, 갯취 등 북방계 식물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나마 들복죽제를 통해 그 명맥은 이어지고 있다. 문화가 아닌 이벤트로... 한라산 아고산대에는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구름미나리아재비의 광활한 군락, 시로미, 암매, 털진달래, 눈향나무 등의 대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제주조릿대의 번성으로 우리나라에서 희소한 야한대 경관과 식생이 사라지고 있다. 모두 자연의 천이에 맡겨버린 결과이다.

오름 역시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관백 등 침엽수 위주의 조림으로 고유한 오름의 능선은 사라지고 종 다양성이 급속히 감소하며 경관과 식생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아소초원이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열린마당

제주 첫알오름 백조일손 역사관 준공



고영우 백조일손유족회 회장

제주첫알오름 집단학살 사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분노가 터지는 이 역사적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 과정에서 연행됐던 주민 344명 가운데 252명이 2차에 걸쳐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첫알오름에 있는 옛 일본군 탄약고 터에서 계엄군에 의해 학살·암매장된 사건이다.

그렇게 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쌓일 대로 쌓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족회는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노력과 한이 하늘에 닿았는지

정부와 많은 국민의 지지로 역사관 건립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희생된 선조들을 기리는 역사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준공됐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첫알오름은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로 드디어 세상 밖으로 알려졌고 우리 유족회는 역사관 건립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이제 이 역사관은 우리 제주 민중의 아픔인 동시에 역사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다. 이에 유족회 여러분은 역사관에 전시할 회화사 관련 자료 및 증언 등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유족회로 연락 또는 전시 공간으로 가져오면 되겠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이시여! 모든 노여움 푸시고 두 어깨에 짊어진 짐도 다 내려놓으시고 고이 고이 영면하시어.

5월 31일은 바다의 날, 물과 바다를 아름답게



김현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매년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바다는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지만 오염되고 있다.

바다의 오염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해양 쓰레기이다. 인간이 무질서하게 바다로 버린 쓰레기들은 생태계의 많은 생물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생물에 대한 위기만은 아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먹이사슬로 인해 결국은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주도 또한 지속된 개발과 쓰

레기의 증가로 바다 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해양 쓰레기 문제만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이며 해수욕장이나 근처 바닷가에 쓰레기가 밀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다의 날을 통해 모든 생물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한 바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바다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젠 우리의 행동이 질실하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조강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을 함께 시작하고 물 오염의 주된 원인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부터 모두가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물과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Court Auction Real Estate Sale Notice) with a table of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매각 물건' (Auction Property) with a table of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경훈' (Jeju District Court Judicial Secretary Lee Kyung-hoon)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map.

Advertisement for '시민장 의 사' (Citizens' Offic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map.